

3 분의 행복

글. 강석호

행복한 시간은 불연 듯 다가오기도 무심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시간 때나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 일이 없어도 그 3 분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3 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정정하면 생각을 하질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그저 숨만 크게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 보면 3 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터널을 지나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멈추기를 원하는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 저서 글로 서술해 보려 합니다. 서술하기 전에 나에게 하루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뭐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 확신 있게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일어나서 잠을 자는 것'의 주기를 대략 하루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하루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요즘 내가 어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루라는 시간에 담아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이 별 흥미를 주진 못하겠지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짤막한 글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글 쓰는 일이 나와는 무관하여 두서없이 적어나가더라도, 혹 그것이 읽기에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난 단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에게 이해를 구해보려는 바람이 있어서 글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본 것 뿐이니깐요. 비록 보여지는 형식의 언어와 읽혀지는 형식의 언어가 같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난 왠지 모르게 이 방법이 지금의 나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밥을 다 먹기 전에 문득 드는 하나의 잡념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떠올랐습니다. 난 평상시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엔 모두 사람들이 그런 줄만 알았는데 주변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조금 심하게

중구난방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한 생각을 다음 생각으로 이어가기 전에 그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잡생각들이 현재의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땐 아무 곳이나 마구 써 놓고, 얼마 후에 되집어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간혹 그 글을 봐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젠 습관이 되니 몇 단어만 적어 놓아도 기억속 상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든 하나의 생각은 '난 뭐하는 사람이지?' 예전엔 화가라고 머뭇거림 없이 말해 버렸는데 얼마 전부턴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할 경우 '화가' 라는 명칭을 쓴다면 난 화가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잡다한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건드려 보는 나를 되돌려 지켜보면, 글썄 거기엔 약간의 혼란이 내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게 됩니다. 사실 화가이던 아니던 직업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스스로 속삭여 주지만 그게 지금의 나에게겐 그렇지를 못합니다. 단지 좋아서 한다고 하는 말속에 의미가 내 자신에게 나이브함을 보여줌으로써 안개속에 갇힌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쉽지 않은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가면에 가려진 나의 그림자 일지도 모른다. 그런 나의 직업은 즐거울 수 있는 것일까요? 난 이 직업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난 지금 즐거운가요? 누구에게 물어 봐도 자신들만의 방향성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젠 커피에 우유, 설탕 두 스푼 넣고 잘 저어봅니다. 평상시엔 약간 진한 레귤러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아침엔 꼭 우유와 설탕을 섞어 먹습니다. 그래야 잠이 빨리 깬다는 몸에 배인 습관에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다가 갑니다. 정류장으로 가면서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버스가 왔군요. 다른 이 들은 잘 모르겠지만 난 쉽게 지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치는 것도 버릇이 될 수가 있을까? 글썄 잘은 모르겠지만 내 경우엔 웬지 모르게 '버릇' 이라는 단어가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지치는 버릇에 어떤 행동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몸의 세포가 신통치 않은가 봅니다. 보약을 먹거나 비타민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것' 에 관한 것입니다. 난, 보는 행위를 무척 좋아하는 동시에 쉽사리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는 버릇은 눈이 아프도록, 머리가 무거워 질 때까지 무식하게

덤빚니다. 그러곤 아무 일도 못한 채 힘없이 안락의자에 걸터 앉아서 정신을 깜박깜박 놓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나를 돌아보면 참! 이게 뭘 일인가 싶습니다. 왜 나는 항상 피곤한 상태로 그런 것을 반복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나는 내 눈을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합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숲을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뭇잎의 초록색이 눈의 피로를 해소시켜 준다는데 난 초록이 없는 겨울의 숲도 내 눈의 피로를 맑게 해줍니다. 나는 숲에서 그 무엇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걷기 위해서 바라 봅니다. 그리고 보니 난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서 산책이지 그냥 속된말로 싸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딜 돌아다니는가 하면 그저 정처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타입입니다. 학생이었을 때도 계획 없이 그냥 버스타고 기차타고 배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하러 갔었는지 목적도 없이 힘들고, 발 아프게 걸어 다녔던 느낌과 쓸모 없는 듯한 경험을 위해서 단순히 돈만 지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야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일들조차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무척 피곤합니다. 아! 벌써 버스를 갈아탈 때가 됐네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버스번호를 확인합니다. 햇빛이 도로를 비추면 피부를 골고루 태우기 위해서 팔을 이리저리 돌려 보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몸통은 하얗겠지만 잠깐 동안만이라도 신경을 써 봅니다. 버스에 올라섭니다. 이 버스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종점이 있어 그런지 난 항상 의자에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난 버스나 전철을 타면 그때그때 관심이 가는 글귀를 찾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내 시선에 자주 비쳐지는 것은 시사주간지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나 논쟁거리가 주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나 같은 경우 보통 한 주간에 있었던 문화, 사회, 정치소식이나 국내, 국제동향 그리고 소소한 주변 이야기를 소설책 읽듯이 훑어봅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군요. 버스에서 내려 108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108 계단의 숫자를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툭툭 발을 옮길 뿐입니다. 나는 산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내 일에 대해 의구심과 회의를 가질 때, 무작정 걸어 다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습관처럼 도로위를 배회합니다. 한참을 걷다보면 그 행위자체가 힘이 들어 안락의자에 기댄 채 잠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그 직후에 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작업실 안락의자에 손가방을 얹어 놓고 다시 문을 나섭니다. 난 오늘도 여전히 산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러 간다고 보단 이것저것 살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저 발 가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생각을 이곳저곳에 흘러가며, 부산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문 듯 아빠가 생각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부쩍 아빠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예전에 아빠랑 같이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근래에 와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때의 아빠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리단 길 가에 있는 커피를 마시러 무작정 길을 따라가 봅니다. 길을 걷다가 다른 곳으로 새는 나의 한심한 모습에 오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산을 오르내릴 때 같은 길을 습관처럼 행동하는 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내를 걸어 다닐 땐 이 골목 저 골목을 목적없이 들쭉시고 다니는 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기가 까다롭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뒤에서 보았을 때 내 모습은 방향성에 맞추어 걸어 갈 것 같지만, 항상 엉뚱한 곳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잡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경리단에 도착했습니다. 저렴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시선을 카페 내부에 고정해 봅니다. 그리고 시원한 커피를 들고 거리를 가볍게 걸어 봅니다. 거리의 풍경은 항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때론 너무 많은 정보가 금세 나를 지치게 만들지도 하지만 한가로이 길을 걸어 다니는 내 모습이 풍경속에 스며들 때면, 사사로운 고민들은 슬그머니 내 그림자에 모습을 숨깁니다. 어느덧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디오와 노트북을 켜 놓습니다. 마치 난 화가라는 직업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벽에 걸려있는 이미지들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점은 없는지,,, 어쨌든 오늘 첫 음악은 무엇으로 할까 잠시 고민해 봅니다. 7-8 월 한참 더위에 지칠 때 그 어떠한 음악을 틀어도 그것조차 덥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곡은 매번 신중하게 선택되어졌습니다. 물론 선곡이 그렇게 훌륭하진 못 했지만 그래도 음악을 켜 놓은 것 까진 꽤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아직도 작업실공기가 후덥지근합니다. 집시음악을 몇 곡 골라서 들어 봅니다. 나쁘지는 않군요. 들을 만은 합니다. 비록 난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듣는 행위와 오디오의 외형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항시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TV 켜 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추어서 음악을 선곡하기도 하지만 그 조차 귀찮은 날에는 그냥 TV 를 틀어 놓거나,
그것도 거슬리면 화면만 띄어 놓고 일을 합니다. 화면을 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겐 벗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들이 길어지면 가끔은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시음악이 귀에 알맞게 달라붙는군요. 유튜브에서 장고 라인하르트를 찾아 그의
영상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폴더안에 저장을 해 놓고 반복해서
모니터에 띄어 놓았습니다. 그의 두 손가락이 지판위의 현을 누르는 모습과 거기에서 들리는
음률은 마치 알아듣지 못한 말로 내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일지라도, 마치 난 그의 이야기를 이해한 듯이 고개가 절로 끄덕거리집니다. 곡이
끝나기전에 글렌 굴드의 연주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리가 짧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건반을 치는
모습은 기괴해 보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독특한 그만의 제스처에 깊이 박힌 선율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아노연주와 알아듣지 못하는 종얼거림은 마치,
무언의 말을 통해서 연주를 지휘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는, 속삭임으로 지휘를 하며
손짓으로 묘사를 하고 건반의 소리로 아름답게 말을 걸어 옵니다.

부정과 긍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형성되어진 행동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그러한 방식에 특별한
기준점은 없지만 대상과 나와 의 거리를 관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나의 태도변화에 일정한
'거리두기' 라는 것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대상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짐은 나에게 있어서 아직까진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습관은 오랜기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익혀진 행동 방식이지만, 습관을 분절로 잘게 쪼개어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돌출
되기도 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에 치여서 음악소리조차 소음으로 인지하는 그 순간은
마치 막다른 골목길에서 벽을 마주하는 답답함이 듭니다. 사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켵니다. 제법 오래된 스피커를 통해 은근히 퍼지는 소리는 주변을 밝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런 분위기에 마음을 의지하는 듯한 나는, 어느 한 순간에 주파수위치가 바뀐 것처럼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어쩔 땐 내게 어울리는 주파수를 찾으려 다양한 곡을 선별하거나 따뜻한 열그레이차로 진정시켜보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그것에 관한 현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파수를 맞추다 힘이 들면 전원을 꺼 버리면 되니까요. 난 지금 오디오를 끄고 TV 를 켵니다.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반복적으로 챙기는 것은 일정시간이 되면 약속을 지키듯이 드라마를 챙겨본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드라마에 중독이 되었나 생각도 해보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보지 않은 것으로 봐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송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이지만 시사토론과 다큐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지식이 축적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의심만 커지면서 방송에 관한 신빙성마저 스르르 사라지는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작업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2-3 시간정도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지만 나의 직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공공기관에 갈 일이 있을 경우, 그 곳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관례적으로 내 직업을 물어 보았을 때, 그때 '직업' 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고민해 봅니다. 지금은 물론 미리 준비된 대답을 할 만큼 능숙해 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내가 예전에 어떤 직종을 적어 놓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통상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있다 보니,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도 변하고, 혹은 그 상황에 필요한 대답을 맞출 줄 알다보니 내 직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지만 그리 오래 생각을 끌고 나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직업이란 모름지기 일정기간동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뭐! 그래야 하는데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이 일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내 자신이 인정을 하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신에게도 '직업'이라고 명함을 가지기엔 충분치 못 하는가 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나와 같은 에피소드를 맘 한켠에 담아두고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잠시 실 검해서 커피포트로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더운 여름이라도 보통 늦은 저녁엔 따뜻한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어느덧 시간이 자정에 다가가는군요. 나도 직업을 가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 버는 일을 합니다. 이 직업은 나에게 숙스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 그런지 확실치 않지만 아직은 잘

맞은 신발을 신은 기분은 안 듭니다. 가끔은 꼭 끼어서 발톱이 빠질 만큼 아프고, 어쩔 땐 혈령해서 뒤통치에 물집이 잡힙니다. 나는 '시간강사' 입니다. 비록 계약직이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직으로 인식 되는 것 보단 사회적 통념상 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아쉬운 소릴 할 때 시간강사라는 직업은 적어도 무용지물에 속하진 않습니다. 한번은 '화가'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무분이 내 직업란에 '무직' 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적잖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근래엔 '좋은 직업을 가지셨군요.' 라는 덕담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되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이 길어지는 것을 불편해 하는 나는 그냥 간단히 불일 만 보고 끝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작업을 하는 게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나는 가끔 지금하는 일과 내가 어렸을 적에 가졌었던 꿈과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가끔 길도 잃어버린 다는 것, 두 번째로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하고 관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 세 번째로 엉뚱한 상상력과 노력을 통해서 빛어지는 실수가 우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그냥 바쁘지만 백수처럼 보인다는 점, 새벽이 되기 전에 3 분의 행복을 담으려 문을 나섭니다. 3 분이 지나 바람을 가르며 집골목으로 접어들자마자 항상 거기에 있는 다리를 저는 고양이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귀찮은 듯이 슬쩍 쳐다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선 나는 오늘 한 일을 대충 정리해 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형성되어진 행동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그러한 방식에 특별한 기준점은 없지만 대상과 나와 의 거리를 관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나의 태도변화에 일정한 '거리두기' 라는 것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대상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짐은 나에게 있어서 아직까진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습관은 오랜기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행동 방식이지만, 습관을 분절로 잘게 쪼개어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돌출 되기도 합니다. 침대에 기댄 듯이 누워 TV 를 켭니다. 이미 정규방송은 끝나서 다시보기로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잠을 청해봅니다.

(2012 년 늦은 여름)

